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¹²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
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¹
³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
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
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¹⁴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¹⁵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¹⁶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
어 주게 하시니 ¹⁷먹고 다 배불
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
구니에 거두니라 (눅9:12-17)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광영 중에
(光榮, *in splendor*) 계시는 대신
평범한 사람들과 거의 구분이
안 되실 정도로 너무나 겸손하
게 사셔서 유대인들은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대신 속으
로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주님 또한 도저히 그들
에게 그들이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실 수 없으셨는
데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들이
주님을 다른 방식으로 인정한
후, 그 결과, 나중에 자신들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못 보게 되
면, 그들은 예전처럼 돌이켜 모
독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기꺼이 표적을 주실 수 없으셨
던 이유입니다... (AthCr.98) *The
Lord lived in so humble a wa
y as scarcely to be distinguis
hed from an ordinary man, a
nd not in splendor as God, t
hat the Jews might not ackno
wledge him as the Messiah fr
om externals, but from intern
als; and for the same reason
he was not willing to give th
em signs from heaven; for if
they had acknowledged him i*

눅9:12-17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n any other way, and afterwards had not seen themselves exalted to be the lords of earth, they would have fallen back, and so would have become profaners; it was for this reason that he was not willing to give them a sign (concerning which see . . .). (AthCr.98)

이 내용은 스페텐보리 저, ‘아타나시우스 신조’(The Creed of Athanasius) 98번 글 인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새다라는 마을의 외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벳새다는 주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많이 다니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하시고, 그 밖에도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새다 사람들은 좀처럼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계시록 해설’ 239번 글에서는 벳새다의 속뜻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벳새다 사람들은 그토록 완악한 자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1절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¹¹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구에게나 벳새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벳새다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진리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진리에 전적으로 승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결국 진리에 대항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고치시는 병이 어떤 것입니까? 온갖 종류의 교만과 위선, 의심과 정욕의 병입니다. 그러나 병 고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일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수없이 많은 아침과 낮과 밤이 지나야만 합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¹²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날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날은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들의 영적 생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영적 생명이 뭘까요? 영적 생명은 사람의 의지 또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날이 저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커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것이 날이 저무는 것입니다. 그때 열두 사도가 나아와 주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열두 사도, 곧 주님의 제자들은 보통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인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추상적인 의미로 주님에 대한 믿음,

또는 믿음과 관련된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 열두 사도는 무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 또는 믿음의 진리들을 뜻합니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을 느끼는 때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빈들은 사막이나 광야와 같은 말입니다. 즉 진리는 있는데 선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만 있고 선은 없을 때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의 내면은 광야나 사막과 같습니다. 따라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는 있는데 선은 없사오니 선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도, 그래서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이 필요

눅9:12-17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합니다.

¹³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는 신앙인의 내면에 있는 믿음 또는 진리를 가리키며,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으니 그 선으로 영적 양식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떡’은 영적 선을 뜻하고 ‘다섯’은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자연적 진리를 뜻합니다. 자연적 진리란 말씀에 대한 지식처럼 문자로 표현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둘’은 영적 싸움, 전투를 뜻합니다. 말씀에서 영적 전투를 나타낼 때는 보통 여섯이란 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둘이라고 했습니다.

다.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믿음 가운데 선은 조금 밖에 없고, 그저 말씀의 지식만 있으며, 그런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에서 ‘사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삶으로 옮겨 선을 획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를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외진 곳, 사막처럼 되는 것입니다.

¹⁴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뭍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은 사람들을 앗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오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대략 오십 명씩 앗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만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남자가 오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오천은 그 진리가 아주 많은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주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계명대로만 살면 되지 그 밖에 무슨 진리가 더 필요하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론적인 진리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수없이 많은 구체적 삶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의 진리들이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의 진리들 또한 따로 있습니다. 악인을 상대하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선한 사람을 대할 때의 진리 역시 따로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진리가 있고, 교회를 섬기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에 일일이 기록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진리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천 명의 남자들은 신앙인들이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삶의 지식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고, 인간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진리들 속에 당신의 선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십 명씩 앗히시는데, 그것은 천국의 질서에 따라 진리를 배열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진리들은 책장에 책이 아무렇게나 꽂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질서하게 놓여있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들은 주님의 방식대로 질서 있게 배열됩니다. 마치 천국에 수많은 천사들의 수많은 공동체가 질서에 따라 존재하는 것처럼, 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광야에서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듯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때와 장소에 따라, 사안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는 진리들을 당신의 방식대로 배열하시고, 거기에 선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자들을 오십 명씩 앗히라 하신

눅9:12-17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것입니다. 오십은 아주 작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십 명의 남자는 사람의 내면을 형성하는 진리 체계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것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진리 전체를 위해 기여합니다.

¹⁵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¹⁶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들이 다 앉자 주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축사,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형성하는 모든 선과 진리들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없는 선에는 진리가 더해지고, 선이 없는 진리에는 선이 더해져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 안의 진리가 그렇게 살아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속 사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 안으로 흘러들어와 삶이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17절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¹⁷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는 진리를 삶으로 옮겨 생명으로 만드는 것, 곧 ‘먹는 것’이 아주 흡족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도 같은 뜻입니다. ‘열둘’은 본래 믿음과 인애에 관한 모든 것을 뜻하고, ‘바구니에 담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인애에 속한 것은 뭘까요? 진리가 가르치는 모든 선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진실이라든가 겸손, 이웃을 위한 배려, 절제, 화목 및 순결과 같은 모든 선한 것들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그러한 고귀한 것들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여 기적을 보이시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 때문에 잠시 주님을 믿을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모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기적은 영생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던 것은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에는 제자들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부족한 점을 주님께 고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제자들, 사도들은 그 속뜻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 내면에 있는 믿음 또는 신앙의 진리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께 고하는 것은 그들이 각자의 믿음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수많은 진리의 지식들을 살아있는 진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그때도 믿음으로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도우심을 청할 때도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무리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을 때도 제자들을 통해 받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눅9:12-17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주님’

있고,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믿지 않으며,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¹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²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 1:1-2)

아멘

원본

2019-04-28(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년 5월 17일(D4)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